

## 강희업 2차관, 남해안 축 철도망 완성을 위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장 점검

- 조속한 개통을 위해 지반침하 구간의 신속한 복구공사 완료 주문

- 강희업 국토교통부 2차관은 8월 13일 오전 국가철도공단 영남본부에서 부전마산 복선전철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, 이후 공사 현장을 방문해 복구공사와 잔여 공정 현황을 점검하였다.
- 부전마산선은 부산 부전에서 김해시 진례까지 32.7km 구간에 5개 정거장을 신설하는 BTL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이 완료되면 부전에서 마산까지 열차가 운행될 예정이다.
- 동 사업은 '14년 6월 착공하였으나, '20년 3월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현재까지 복구공사 중이며, 복구공사 이후에는 낙동1터널의 피난갱 2개소가 잔여공정으로 남아 있다.
- 간담회에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와 토질 및 방재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으며, 낙동1터널 잔여 피난갱 시공 가능성에 대해 시공사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.
- 이후 강 차관은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, “복구공사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된 만큼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과 공사 과정에서 작업자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”을 주문하였다.
- 강 차관은 “부전마산선은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사업”이라고 강조하면서, “복구공사를 신속히 완료하고, 잔여 공정도 조속히 이행할 것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	책임자	과 장	김현진 (044-201-3988)
		담당자	사무관	송명근 (044-201-3968)
		담당자	주무관	박재원 (044-201-3965)